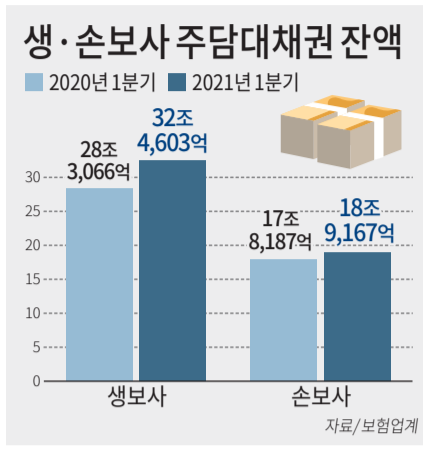


# 보험사도 신용대출 막혔다... DB손보, 업계 첫 대출 중단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수요 몰려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채권 잔액 ↑ DB손보 보험약관대출 381억 증가



DB손해보험 사옥 이미지. /DB손해보험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계에도 대출유좌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보험사 가운데 최초로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다. 업계에서는 다른 보험사들도 대출금리 인상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 1일부터 자사 신용대출 신규 운영을 중단했다. DB손보는 올해 말까지 모든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에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DB손보가 신용대출을 중단한 데는 전체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조절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상반기 DB손보의 보험약관대출은 전년 동기보다 381억원 올랐

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1조862억원으로 뛰며 전체 가계대출이 크게 상승했다. 개인신용대출은 같은 기간 3157억원으로 마무리하며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억원 증가에 그치게 됐다.

DB손보가 신용대출을 중단한 데는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가계대출 관련

임원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저축은행에 이어 보험사의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의 주담대로 수요가 몰려서다.

올 1분기 말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가계 주담대채권 잔액은 각각 32조

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6.2%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가 화상 회의를 통해 보험사 임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유한 것이다. 다만 특별한 수치를 주문하기보다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에 대한 당부가 컸다.

이후 DB손보가 처음으로 신용대출 중단에 나서자 보험업계에도 긴장감이 부는 모습이다.

이미 다수의 보험사들은 주담대 금리를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로 2분기 말 기준 삼성화재의 주담대 금리는 3.03%로 지난 1분기보다 0.04% 포인트(p) 올랐다. 현대해상의 주담대 금리도 0.28%p 상승했다.

당시 금융업계에서는 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DSR 규제가 6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범위가 느슨하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보험사의 대출 중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DB손보의 신용대출 중단 사례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 의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 쪽에서는 신용대출을 하는 곳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규모가 작고, 주담대와 약관대출의 규모가 크다. 따라서 신용대출 중단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신 지금 업무 권역마다 대출 통제가 있어 주담대, 약관대출의 대출금리 인상 등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 카드결제 꺼리는 보험사... 카드납지수 11%

(생보 보험료)

손해보험 신용카드납 지수 16.5% "높은 카드 수수료에 보험료 인상 우려"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해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라 카드납부를 꺼리는 보험사가 많아서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생보사의 신용카드납 건수 기준 비중은 11.1%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료의 카드 결제 금액 비중이 13.7%로 가장 높았다.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카드 결제는 각각 1.1%, 0.8%로 사실상 카드 결제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생보사 중에서는 라이나생명의 카드 결제 납입건수가 38.9%로 1위를 차지했다. AIA생명과 신한라이프의 카드 결제 납입건수는 각각 27.5%, 25.6%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의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생보사는 KB생명이 유일했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우 생보사보다 비

교적 양호했다. 같은 기간 손보사의 신용카드납 건수 기준 비중은 전체의 16.5%에 달했다.

손보사의 경우 다이렉트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가입 비중이 높은 자동차보험 때문에 생보사와 비교해 신용카드납 지수가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손보사의 상품별 신용카드납 지수는 자동차보험이 7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장기보장성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은 각각 14.8%, 5.3%에 불과했다.

손보사별 카드납입 건수 비중은 DB손보가 1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삼성화재와 KB손보는 각각 15.9%, 15.5%였다. 자동차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는 캐롯손보의 카드납입 건수 비중은 92.1%로 눈길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왔다. 소비자들이 보험료 납부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말 카드·보험

업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마다 2%대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해야 한다. 때문에 보험사들도 보험료 카드 납부를 쉽게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두 업계 모두 불황이 장기화되며 추가 논의 및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에 관해서는 카드업계에서 정하는 몫이 있다. 기존에 적용하는 2%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사업비로 적용돼 보험료 인상이 우려되고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몇 년째 카드업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만큼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지연 기자

## 삼성생명, 업계 최초 후천적 장애 보장

'무배당 생활보장보험 탄탄하게'

삼성생명이 생명보험 업계 최초로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를 모두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

삼성생명은 오는 7일부터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하는 '생활보장보험(무배당) 탄탄하게'를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생활보장보험 탄탄하게'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구분 없이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선천이상 제외)를 보장한다.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 정도를 보장하는 것은 생보 업계 최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대부분 중증장애 위주의 한정된 보장을 제공해왔다.

이 상품에 가입한 후 장애가 발생해 장애인 등록을 완료할 경우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모든 장애에 대해 보장하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 15종을 포함한다.

현대인의 고질병인 근골격계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지



원한다. 2019년 기준 만성질환 환자 수 1위에 해당하는 고혈압, 2위인 관절염, 5위인 당뇨병을 특약을 통해 보장한다.

특히 특정근골격계질환진단특약을 통해 디스크질환, 통풍 진단은 물론 생보업계 최초로 골다공증질환 진단, 특정 관절병적추염 진단 등에 대한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업계 최초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실직하고 해당 사유로 고용보험공단에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최대 91일까지 구직급여지원금도 제공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보업계 최초로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보장한다"라며 "혹시나 모를 후천적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 NH농협카드 관리비 자동납부 캐시백 이벤트

추첨 통해 캐시백 20만원

NH농협카드가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NH농협카드의 NH농협 개인 신용·체크(BC체크 제외)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해당 기간 동안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고 기간 내 1회 이상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승인이력이 확인된 고객중에서 추첨을 통해 ▲캐시백 20만원(100명) ▲스타벅

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0명)을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았던 고객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NH농협카드 홈페이지나 카드 스마트앱 '진행중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해야 하며 경품 지급 시점까지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신청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동납부 신청은 농협카드 홈페이지(My NH-자동납부신청-아파트관리비 신청) 및 카드스마트앱(납부·편의-자동납부-아파트관리비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자동납부를 통해 고객들이 매월 관리비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권소원 기자 think@

## 우리은행, 청약종합저축 이벤트 '풍성'

신규 가입고객 대상

우리은행이 '풍성한 청약저축 가을 이벤트'를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고객이 대상이다. 총 500명에게 ▲국민관광상품권 100만원권 (5명) ▲닌텐도 스위치 (15명) ▲한우종합세트 (20명)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쿠폰 (460명)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한 고객도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청약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34세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 조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고객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을 담은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ysl@